



## 생선장사 비린내 10년만에 1억원 당첨

남편과 함께 시작한 생선장사. 이제는 소금에 절인 생선냄새가 고소하게만 느껴진다는 김모씨50 경기도 안산. 그에게 복권 억원 당첨은 힘들어도 꾀꾀하게 살아온 삶의 대가일 것이다.

“갈치사이소~!”

하지만 처음 남편이 같이 장사를 하는 말에 김씨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혼생활 동안 줄곧 집에만 있어 왔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자신이 아무리 남편과 같이 한다고 해도 잘 될 수 있을 까라는 의구심만 생기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한 달여를 고민하고 난 후에야 시작한 것은 생선장사였다.

지금부터 10년 전이다.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가 역겹기도 하고 옷에 항상 배어 있는 생선 절은 내음이 창피해서 왜 이 일을 선택했나 후회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새벽부터 설쳐대는 남편의 부지런함 덕택에 회사생활보다는 수입이 짝잘했다. 생선을 다듬는 김씨의 손길도 이제는 어느 생선장사 아줌마 못지 않게 능숙해졌고 쑥스러워 손님의 발길도 잡지 못했던 김씨가 이제는 자연스레 지나가는 손님을 가게로 끌어들이며 생선을 판다.

그렇게 시작한 생선장사도 그러저럭 10년.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 찾아왔다. 복권 당첨이었다. 8월 초순인가 아침 일찍부터 남편이 생선을 손질하는 사이 파리를 쫓는 약을 사러 슈퍼에 갔다가 복권을 산 게 당첨이 됐다. 자치복권 1등 1억원이 당첨된 것이다.

“복권은 제가 샀지만 남편 덕분입니다. 저는 장사를 하기 싫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지만 남편은 물불 안 가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에 병이 날 정도로 일했으니 보상을 받은 겁니다.”

당첨금은 가게를 크게 확장하는데 유용하게 쓰겠다고 생선비늘이 붙어 있는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는 김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